



바다무지개

2016년 5월 초

5월 8일 아버이날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하여 경로효친의 행사를 하여오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날'이 거론되어 1973년에 제정, 공포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아버이날'로 변경, 지정하였다.

이 날에는 각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와 조부모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감사의 뜻으로 선물을 하거나 효도관광에 모시기도 하며, 기념식장에서는 전국의 시·군·구에서 효자·효부로 선발된 사람에게 '효자·효부상'과 상금을 수여하고, 이들에게 산업시찰의 특전이 주어지기도 한다.

또한, 이날을 전후하여 '경로주간'을 설정하여 양로원과 경로원 등을 방문, 위로하고, 민속놀이 및 국악행사 등으로 노인들을 위로하며 노인백일장·주부백일장을 개최하여 어른 공경에 관한 사상을 앙양한다.



음력 4월 8일 석가탄신일

초파일(初八日)이라고도 한다. 석가는 BC 624년 4월 8일(음력) 해뜰 무렵 북인도 카필라 왕국(지금의 네팔 지방)의 왕 슈도다나(Śuddhodāna)와 마야(Māyā)부인 사이에서 태어났다. 경(經)과 논(論)에 석가가 태어난 날을 2월 8일 또는 4월 8일로 적고 있으나, 자월(子月: 지금의 음력 11월)을 정월로 치던 때의 4월 8일은 곧 인월(寅月: 지금의 정월)을 정월로 치는 2월 8일이므로 원래는 음력 2월 8일이 맞다. 그러나 불교의 종주국인 인도 등지에서는 예로부터 음력 4월 8일을 석가의 탄일로 기념하여 왔고, 한국에서도 음력 4월 초파일을 석가탄신일로 보고 기념하며 1975년 1월 27일 대통령령으로 공휴일로 지정하였다.

한편 1956년 11월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열린 제4차 세계불교대회에서 양력 5월 15일을 석가탄신일로 결정하였다. 또 국제연합은 1998년 스리랑카에서 개최된 세계불교도회의의 안건이 받아들여 양력 5월 중 보름달이 뜬 날을 석가탄신일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2016. 04. 22

박영범 이사장 2016년도 '기업경영자 대상' 수상



기업경영 연구 및 교류를 목적으로 올해 창립 22주년을 맞은 (사)한국기업경영학회가 주최한 2016년 춘계학술대회에서(4.22[목],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인력공단 박영범 이사장이 '2016년 기업경영자 대상'을 수상했다. 2014년 8월 이사장 취임 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일학습병행제 등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추진과 기업이 자율적으로 인적자원을 육성하는 기반 구축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기업경영자 대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기업경영학회 김재구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창조경제시대 기업과 정부의 혁신전략 : 성장과 상생의 가치 실현”이란 주제로 전국 경영학계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띤 토론의 장이 되었으며, 특히 인사혁신처 이근면 처장의 주제 강연으로 이번학회를 더욱 빛내주었다.



= 2016년 기업경영자 대상 공적서(박영범 이사장) =

사람과 일터의 가치를 높여주는 인적자원 개발.평가.활용 지원 중심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능력중심사회 구현이라는 미션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람과 일터의 가치를 높여주는 인적자원 개발.평가.활용 지원 중심기관'의 비전을 통해 국정목표인 '고용률 70% 달성'과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주요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해 스펙초월, 사회형평적 채용 등 차별을 없앤 채용 시스템의 적용.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청년 실업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간 공단은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을 행하는 한편,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능력평가체계 혁신을 통해 능력중심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고용지원사업, 국가인적자원의 해외노동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해외취업 지원사업, 한국형 인적자원개발시스템 및 선진기술을 전수하여 국격을 높이는 국제협력사업을 통해 인적자원 개발.평가.활용 지원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공공기관

박영범 이사장은 제 43회 브라질 상파울루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국가대표 단장으로 국메달 13개, 은메달 7개, 동메달 5개를 획득하여 19번째 종합우승과 대회5연패의 위업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통해 기능강국으로써의 위상을 더 높였으며, 이에 대한 공로로 은탑산업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또한 국가의 지속성장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대한민국명장제도의 운영, 숙련기술전수자 및 우수숙련기술자 선정 및 우대 사업 등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 축진을 위한 숙련기술인의 위상제고에 노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혁신을 지향하는 선도적 공공기관

공단은 2014년 울산본부 이전과 발맞추어 '조직간 벽을 없애기' 위한 본부와 소속기관 간의 화상회의 시스템을 운영, 지역 거점 스마트워크센터 활성화 등을 행하여 지방이전에 따른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CEO현장소통, CEO와 함께하는 런치톡톡, 경영진과 함께하는 굿모닝카페, 주니어보드 활동, 노사 알리오 등 조직내 수평·수직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채널을 마련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와함께 조직활성화 프로젝트인 [One HRD Korea]를 통해 하나되는 조직문화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신뢰받는 공공기관

공단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신뢰받는 청렴공단'이라는 윤리경영비전을 실천해나가고 있습니다. 유엔 글로벌 콤팩트의 인권과 노동, 환경 반부패 규약을 공단 사업의 중요가치로 새기며 그에 따른 10대 원칙을 준수하고자 임직원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일자리의 차별해소와 사회 취약기업을 위한 지원 및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적응과 권익향상 등 '인권'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청렴한 조직문화를 위해 공단은 내·외부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 확대, 부패영향평가제도, 청렴옴부즈만, 임원직무청렴계약제, 윤리경영의 달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체계적인 '반부패' 윤리경영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은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가이드라인 ISO 26000에 맞춰 이해관계자의 미래가치 창출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행복한 사회, 지속가능한 인적자원개발의 미래를 위해 윤리경영 및 지속가능경영 선도기관의 위상에 걸맞는 노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2016. 04. 07

코스타리카 대통령 "한국의 직업훈련 노하우 알려달라"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들과 '번개 미팅'



루이스 기예르모 솔리스 코스타리카 대통령(왼쪽 네 번째)이 전영욱 주코스타리카 대사(첫 번째), 서양열 산업인력공단 글로벌협력팀장(다섯 번째) 등과 직업훈련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제공

“대통령께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실무대표단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대통령궁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코스타리카를 방문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들은 지난 4일 숙소에서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서양열 산업인력공단 글로벌협력팀장 등 세 명의 실무대표단은 코스타리카 국립직업훈련원(INA) 초청으로 4~7일 직업능력 개발 관련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코스타리카를 방문 중이었다.

예정에 없던 대통령 면담 요청을 받은 대표단은 5일 루이스 기예르모 솔리스 코스타리카 대통령을 만나 한국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일학습병행제를 소개하고 국제기능올림픽 19회 종합우승의 노하우 등을 설명했다고 공단 관계자는 전했다. 면담시간은 약 30분이었다. 이 자리에서 솔리스 대통령은 “단기간에 유례없는 경제 성장을 이룬 한국에 관심이 많다”며 “코스타리카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 기업이 기능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국의 직업훈련 노하우를 전수해달라”고 말했다.

전영욱 주(駐)코스타리카 대사는 “한 기관의 실무대표단이 대통령을 면담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코스타리카 정부가 대한민국과의 기술 협력 등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일학습병행제 컨설팅 지정 사칭업체 주의 안내문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일학습병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전문지원기관 등을 지정하여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하여 **컨설팅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최근 일부 지역에서, 일학습병행제 참여 및 컨설팅 등을 명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체로 부터 수수료를 요구하는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일학습병행제 관련하여 **지정 전문지원기관에서는** 기업체로부터 컨설팅 실시라는 이유로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요구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 만약, 일학습병행제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일학습확산팀, Tel: 052-714-8245)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16. 04. 24

미얀마에 NCS 등 인적자원개발 노하우 전수

독일 국제협력공사와 공동으로 미얀마 직업훈련교사 등 초청연수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공단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에서 독일 국제협력공사와 공동으로 미얀마 산업부·교육부 산하 직업훈련원 공과장 및 훈련교사 12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초청연수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초청연수에서 공단은 훈련생 모집계획, 훈련계획서 수립,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등 실습과 한국의 직업훈련 대학, 마이스터고, 민간 직업훈련기관 등을 방문하는 현장 학습을 병행한다. 아울러 연수 참가자들은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월드IT쇼, 글로벌취업 박람회 등 견학을 통해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노하우와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미얀마 직업교육훈련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액션플랜을 작성한다.

미얀마 직업훈련원 운영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한국과 독일이 글로벌 협업을 통해 개발했다. 앞서 한·독 양국의 전문가들은 지난 2월부터 4주간 미얀마 현지에서 미얀마 산업부·교육부 관계자 및 산하 직업훈련원 교장, 훈련교사 등 56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했다. 특히 공단은 이번 초청연수에서 한국의 능력중심사회 구축을 위한 국가 직무능력표준(NCS), 일학습병행제를 소개하고 대한민국명장과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등 숙련기술인을 활용한 숙련기술전수사업 1일 체험 등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박영범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빠른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나라의 경험은 동남아 국가들에게 좋은 학습대상”이라며 “자원과 노동력이 풍부한 미얀마가 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인적자원개발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전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미얀마뿐 아니라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가에도 인적자원개발 노하우 전수를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공단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에서 독일 국제협력공사와 공동으로 미얀마 산업부·교육부 산하 직업훈련원 공과장 및 훈련교사 12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초청연수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귀국예정자 취창업훈련 TOPIK3급반 개강식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귀국 예정자 취창업훈련과정으로 2016년 TOPIK3급 1차 자격취득반의 개강식을 실시 했습니다. TOPIK 2급 이상의 수준을 갖춘 외국인근로자들만을 선별하여 TOPIK3급을 목표로, 진행되는 교육과정에는 TOPIK 3급 합격을 향한 실력과 열정, 열망을 가득안고 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수업에 참가하였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 '김재연 차장' 님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강사 위촉장 수여, 센터장님의 귀국의식 함양교육, 다과회 이후 본격적인 첫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 일시 : 2016. 04. 03(일)

13:00~17:00

○ 장소 : 102호 강의실

○ 대상 : 베트남 웬 반 꾸옹 외 24명

○ 내용 : TOPIK 3급 1차 자격취득반 개강식, 귀국의식 함양교육, 다과회, 수업

귀국예정자 취창업훈련 귀국의식함양교육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TOPIK3급 1차 자격취득반을 대상으로 귀국의식 함양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센터장님의 강의는 전쟁의 어려움을 겪고 독일 해외취업을 통해 일어난 대한민국의 성장배경을 EPS 국가의 외국인근로자들 역시 자국의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의 국가대표로서 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로서 역할이 중요하다는 내용으로 지식과 삶의 지혜가 채워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일시 : 2016.04.03.(일)

14:00~15:00

○ 장소: 102호 강의실

○ 대상 : 베트남 웬 반 꾸웅 외 24명

○ 내용: 귀국의식 함양교육



EPS Leader 및 언어자원봉사자 간담회



2016년 제8차 EPS Leader 간담회 및 언어자원봉사자 간담회가 4월 10일 10시에 있었습니다. 27명의 각국 리더 및 언어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여 CFC 윤리강령을 낭독하고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도 작성하며 알찬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근로자 및 봉사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 일시 : 2016. 04. 10(일)
10:00~12:00
- 장소 : 3층 이노카페
 - 대상인원 : 리더 및 언어자원봉사자 포함 27명
- 주 제 : ▶ 토의안건 : 6
 - CFC윤리경영 행동서약서 낭독
 - 개인정보동의서 안내/번역 의뢰
 - 상담일지 수기작성법 안내
 - 언어자원봉사자 및 각국 LEADER 위촉장 수여 및 의견수렴
 - 귀국지원사업 안내
 - 채류-귀국통합서비스
 - 귀국예정자 취창업훈련 지원 등
 - 휴면보험금 안내



2016 강사 및 자원봉사자 생활법률 교육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2016년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생활법률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직접 한국어와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강사, 자원봉사자 선생님들께서 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며, 자신의 권리와 의무,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필수적인 생활법률교육을 통해 강사 및 자봉의 역량을 강화하고, 더욱 실용적이고 유익한 교육을 제공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일시: 2016.04.10(일) 12:00~13:00 / 15:00~16:00
- 장소: 다목적 홀 / 다문화카페
- 참여인원: 한국어 강사 김진송 외5명, 자원봉사자 안영옥 외 11명
- 강사: 팀장 박남숙
- 내용: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국민연금 안내 / 산업재해가이드



마산의료원

무료진료

힐링닥터스

무료진료



◎ 마산의료원

○ 일시 : 2016년 4월 03일 (일)

14:00~16:00

○ 장소: 상담실

○ 대상: 외국인 근로자 수혜인원 14명

-매월 첫째주 일요일은 마산의료원 무료진료가 있습니다.

◎ 힐링닥터스

○ 일시 : 2016년 4월 10일 (일)

15:00~17:00

○ 장소: 다목적실 101호

○ 대상: 외국인 근로자 수혜인원 15명

-매월 둘째주 일요일은 힐링닥터스 무료진료가 있습니다.

캄보디아 커뮤니티



캄보디아 공동체 쏘츠남 행사 지원

- 일시 : 2016. 04. 17.(일) 10:30~17:00
- 장소 : 창원대학교 운동장
- 대상 : 캄보디아커뮤니티 900여명
 - 외국인근로자 400명, 이주여성 500명
- 행사지원 :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 캄보디아 상담원 신지아/커뮤니티리더
- 내용 :
 - 캄보디아 전통춤, 공연 등
 - 이동센터 운영 및 사업 홍보
 - 5월 중 행사 홍보
 - > 2016.5.8.(일) 무료진료
 - > 2016.05.15.(일) 세계인의 날 행사 등



필리핀 농구 커뮤니티



필리핀근로자이면서 EPS 필리핀커뮤니티 리더인 Agula의 요청에 의해 농구커뮤니티 결성을 위해 센터 내에서 소규모 커뮤니티를 실시하였습니다. 농구의 열기가 뜨거운 필리핀은 농구 커뮤니티를 만들게 되면 어디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커뮤니티를 이끌어 나갈지에 대해서 4월 한달동안 2회(2016.04.17.(일), 2016.04.24.(일))를 거쳐 서로 토론하고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한필리핀 영사관에 커뮤니티를 등록할 경우 많은 지원이 있기에 참여자 모두 만장일치로 영사관에 커뮤니티에 정식 등록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추진하기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 일시: 2016. 04. 17(일) 10:00~12:30, 2016.04.24.(일) 10:00~12:30
- 장소: 3층 이노카페
- 참여인원: 필리핀 근로자 Agula 외 5명



2016 생활법률 자체교육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 교육회원을 대상으로 필수 생활 법률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법률교육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놓치기 쉬운 '국민연금'을 중점적으로 교육하여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고, 외국인근로자 산재보험 가이드를 통해 건강하고 생산성 높은 산업현장에서의 능력발휘를 도왔습니다.

- 일시: 2016.04.17.(일)
11:00~12:00/14:00~15:00
(한국어 교육 2교시)
- 장소: 각 반 교실
- 대상: 한국어 교육 회원
- 내용:
 -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국민연금
 - 외국인근로자 산재보험가이드



2016 외국인근로자 범죄예방교육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마산 동부경찰서'와의 업무 협의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외국인근로자분들이 개인정보 유출과 언어소통의 문제로 인하여 취약하기 쉬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교육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된 외국인근로자분들을 위한 유익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 일시: 2016. 04.17(일)
12:00~13:00
- 장소: 다목적 홀
- 강사: 마산동부경찰서
경위 신상경
- 내용: 외국인근로자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연극
- [그놈 목소리] 감상 및 토론
- 참여인원: 인도네시아 근로자
위도도 외 59명

제46회 TOPIK 한국어능력시험 현장서비스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제46회 TOPIK 시험에 응시한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현장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매주 센터에서 바쁜 근무시간과 일상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하여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 응시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 파이팅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한국어 실력을 아낌없이 발휘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 일 시 : 2016. 04.17(일) 09:00~18:00
- 장 소 : 경남대학교 경상관
- 인 원 : 49명
 - TOPIK I : 30명, TOPIK II : 19명



2016 창원기업사랑 시민축제 기념식에 근로자 2명 표창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2016 기업사랑 시민축제 기념식에 참가 하였습니다. 창원의 대표 기업인분들과 함께 부시장님, 의원님 등 창원 시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축하하는 성대한 기념 식 자리였습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특별히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 서 “EPS 바다무지개봉사단”으로 활동함은 물론 사업장에서도 우수함과 성실성을 인정받은 창원센터 회원 두명이 창원시 표창을 받았습니다.

- 일시 : 2016. 04.20(수) 17:00~18:00
- 장소 : 창원 컨벤션센터 컨벤션 홀
- 표창자
 - 베트남 근로자 : 도안 반 방
 - 네팔 근로자 : 나라얀



제11회 컴쑹쑹왕 대회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제11회 컴쑹쑹왕 대회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특별히 교육회원들이 SNS를 통해 센터를 홍보하는 의미있는 대회를 가졌습니다. 각자 자신만의 특별한 사진과 이야기로 센터를 홍보하는 SNS를 만들어서 EPS 15개 국가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의 수상자는 최우수상에 베트남 "도티미 자우", 우수상에 베트남 "LE TRAN HOA", 장려상에 중국 "장해령" 근로자입니다.

- 일시: 2016. 04.24(일)
10:00~12:00
- 장소 : 103호 정보화 교육실
- 내용 : 센터 홍보 SNS 만들기
- 참가인원 :
- 베트남 LE TRAN HOA 외 9명



제45회 TOPIK 합격증 수여식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제45회 TOPIK 합격증 수여식을 실시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틈틈히 그리고 열심히 센터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고 퇴근 후에도 기숙사에서 한국어 공부를 꾸준히 한 교육회원들의 노력이 합격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합격한 근로자에게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더욱 높은 한국어 실력을 갖추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일시 : 2016.04.24(일) 10:00
- 장소 : 상담실
- 대상 : 10명
 - 베트남근로자 NGUYEN VAN TRUYEN 외 9명



귀국의식함양교육 (HCC)



HCC 주제 : 한국에 온 이유 (해외취업근로자 역할, 자세)

- 우리는 이주(Migration)근로자(Worker) = 해외취업근로자
 - 고국을 떠나 일자리를 찾아 타국으로 가는 근로자
- 해외취업을 선택하는 이유
 - 외국인근로자 개개인의 발전을 넘어 노동력 송출국과 고용국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해결책
- 외국인근로자 입장
 - 본국보다 경제력 높은 타국에서 생활하면서 높은 수입을 얻고 새로운 기술, 문화적 경험을 통해 자기 계발이 가능
 - 여성근로자에게는 더욱 유익하고 좋은 기회
- 외국인근로자 송출국과 고용국의 입장
 - 해외취업은 노동집약에서 고도의 기술 및 서비스 중심의 경제체제를 개편
 - 고용국은 값싼 노동력으로 수요를 충족시키는方便
- 해외취업의 어려운 점
 - 언어소통, 생소한 문화 적응
 - 국경을 넘는 설렘과 두려움에 의한 스트레스 증가
- 한국을 선택한 위대한 결심
 - 한국의 고용허가제(EPS)는 세계제일의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제도, 최저임금 적용 등
- 외국인력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 해외취업의 어려운 점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설립한 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
- 한국에 온 이유는 무엇인가?
 - 스스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함
 - 한국에서 노력한 만큼 본인의 성과 가능 등

4월 채용-귀국통합서비스 1단계 HCC 제3차로 베트남 등 6(?)개국 58명(?)의 근로자들이 귀국의식함양교육을 받았습니다. 모두 1년 이하의 초기 입국 근로자들입니다.

제 3차 외국인 자율방범대활동



- 일시 : 2016.04.26.(화)
19:00 ~ 21:00
- 장소 : 통영시 광도면 안전공단 내
- 참가인원 : 총 12명
 - 성동조선해양(주) 협력사운영부 과장 노찬욱 등 2명
 - 성동조선해양주식회사 협력사 3명
 - 창원센터 센터장, 과장 전문가, 우즈베키스탄 상담원 강류다
- 통영경찰서 2명 총 12명
- 내용 : 외국인 밀집지역 순찰활동 등 자율방범대 활동

성동조선해양주식회사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성동조선해양주식회사 협력사 직원들 및 스리랑카 근로자 2명과 함께 외국인근로자 밀집 지역 및 상가 주변을 순찰 활동하고, 교통질서 계도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장 고충상담도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임금체불 및 사업장변경 관련 상담

베트남

○상담개요

- 베트남 근로자는 2014.10.20. 한국에 입국하여 **공업에서 근무함. M 씨 28세, N 씨 27세, N씨 24세, A씨 26세 등 4명이 근로를 시작한지 1년 3개월이 되었음. 4명의 근로자는 3개월분(2015년 12월, 2016년 1월, 2월)의 임금을 받지 못해 노동지청에 진정하고 사업장변경을 원함.

○진행과정 및 결과

1.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 근로자 M씨 등 4명의 근로자는 3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사업주에게 요청하였으나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해하지 못함.
- 사업장의 외국인담당자는 근로자에 대한 3개월의 체불임금과 매월 급여를 지급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기재한 급여지급명세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함.
- 센터에서는 사업장에서 사실을 확인한 것을 근거로 진정서를 작성하여 노동지청에 접수하였음
- 2주일 후 2016.3.31. 사업주는 임금체불 또는 지급지연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로 고용변동신고를 하였고, 4명의 근로자는 노동센터에서 구직등록필증을 발급받아 구직활동을 개시함.
- 근로자는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었고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아직 노동지청에서 조사가 진행중에 있음

2. 상담포인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69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임금체불 권리구제 절차



- 처리절차

· 사실관계조사→ 체불임금확정→ 지급지시→(지급미이행시)사용자 입건 및 부지급시 고소·고발→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체불임금확정·지급권 유 → 수사결과 검찰송치

- 처벌

-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 단, 반의사불벌 취하의 경우 사업주의 처벌은 하지 않으며, 추후 재신고(진정, 고소, 고발) 불가
-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관보나 공공장소에서 공개할 수 있음.
-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CFC 우수상담사례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외고법 제25조 (사업 또는 사업장변경의 허용)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 첨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69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1.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휴업, 폐업 등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장기간의 휴업·휴직 또는 폐업·도산의 확정

1)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휴직을 하면서 휴업·휴직 전 평균임금의 70 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기간이 사업장변경 신청일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휴업·휴직 전 평균임금의 90 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기간이 사업장변경 신청일 전 1년 동안 6개월 이상인 경우 등 휴업·휴직으로 인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휴업·휴직 중이거나 휴업·휴직이 종료된 후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장변경을 신청한 경우에 인정한다.

2) 사업장이 파산·청산절차 개시의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도산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경우 사업이 중단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는 경우 등 사업장의 폐업 또는 도산이 확실시 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CFC 우수상담사례

나.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권고사직

사업의 양도.양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기계) 도입이나 기술혁신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원감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사용자로부터 퇴직권고 또는 인원감축 등의 조치를 받아 퇴사하게 되는 경우

다. 공사종료, 사업완료 등

공사종료, 사업완료 등에 따른 인원감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사용자로부터 퇴직권고 또는 인원감축 등의 조치를 받아 퇴사하게 되는 경우

라. 입국 후 최초 사업장 배치 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인도되지 않은 경우(미인도)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국하여 최초 사업장에 배치되기 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폐업, 채용계획 변경 등 사유에 관계없이 근로자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인도되지 못한 경우

2.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근로조건 위반

1)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이 20 퍼센트 이상 저하되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는 등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등으로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사업장변경 신청일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인 경우. 다만, 근로조건이 저하된 기간 중이거나 근로조건이 저하된 기간이 종료된 후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장변경을 신청한 경우에 인정한다.

2) 근로시간대가 임의로 변경되어 1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등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농축산업, 어업 등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임금 체불 또는 지급 지연

1)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또는 임금의 30 퍼센트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사업장변경 신청일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인 경우 등 임금체불 또는 지급 지연으로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임금체불 또는 지급지연 중이거나 임금체불 또는 지급지연이 종료된 후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 인정한다.

CFC 우수상담사례

2) 그 밖에 임금체불 또는 지급 지연이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등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당한 처우(폭행, 상습적 폭언, 성희롱, 성폭행, 불합리한 차별 등)

1) 사용자(「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를 의미함)로부터 폭행, 상습적 폭언, 성희롱, 성폭력 등을 당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사용자(「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를 의미함)로부터 국적, 종교, 성별,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음으로써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의 제한

사용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고용허가를 취소당하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용제한 조치를 받게 되어 외국인근로자가 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

II.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사업 또는 사업장변경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사업 또는 사업장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69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

미얀마 경제·사회 개발을 이끌어갈 미얀마 개발연구원(MDI) 수립

글·사진 : 서영채 (미얀마 사무소 ODA 청년인턴)

이달 초 출범한 미얀마 신정부는 일련의 정치 자유화 조치 및 과감한 개방개혁 등 강력한 경제개발을 추진하며 효과적인 국가개발 전략과 정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혁신적인 국가발전전략 수립은 물론 정부의 경제, 사회 개발정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 현상 분석과 전망, 주요 정책 과제의 연구 등 실증적인 연구와 정책 조언을 실시할 수 있는 정책연구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코이카는 정부주도 개발전략 추진과 정책연구기관의 운영에 있어 각별한 성과를 이끌어 온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유사한 정책연구소를 미얀마의 여건에 맞추어 미얀마개발연구원(MDI: Myanmar Development Institute)을 설립하고자 한다. 본 사업은 2014년부터 2019년 간 2,000만 달러 규모로 사업수행기관은 KDI이며, MDI는 출범 후 미얀마 법정부적 국가 경제 및 사회 정책 수립에 기여하여 미얀마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지난 2015년 11월, MDI 설립에 대한 대통령 승인 후, MDI는 금년도 1월에 임시사무소를 개소하고 「MDI마스터플랜」을 발표하여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마스터플랜은 미얀마 측에서 주도적으로 작성되어 MDI 비전, 구성 및 운영, 재정 및 예산, 인력 구성 및 고용 시스템, 연구조사 프레임워크, 역량 강화 교육훈련 프로그램, 파트너십과 국제관계 네트워크 구축, 정부의 싱크탱크로서의 연구과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코이카는 지속적으로 미얀마 공무원들이 주체적으로 개발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미얀마 주요정책 공동연구를 실시한다. MDI 사업의 공동연구 분야는 총 5개 분야로 △거시경제(Macro-economic Management and Financial Market) △산업 및 무역정책(Investment, Industry and Trade Policy) △지역개발(Spatial Policy, Region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 △사회개발(Social Development : labor, health, education) △거버넌스 및 정부혁신(Governance and Public-Sector Reform) 중 신정부와 협의하여 분야별 우선순위 5개 과제를 선정하고 MDI 사업의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공동연구 및 신정부의 정책수립을 전 방위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MDI 사업의 핵심인 정부의 싱크탱크는 MDI를 이끌고 나갈 연구원 인력 양성이다. 이를 위해 코이카는 MDI 사업의 핵심요소로서 「MDI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석.박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지난 2015년에 1차 연구인력 석사학위 과정에 12명을 선발하여 현재 KDI School에서 MPP(Master program of Public policy)를 이수 중이며 현재 2차년도 MDI 석.박사 프로그램 지원 접수를 받고 있다. 금년도 3월에 진행된 입학 설명회에는 미얀마 개발 정책을 이끌어 나갈 총 160 여명의 예비지원자들이 참석하여 MDI 수립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금년도 과정에는 박사학위 과정도 2~3명 선발 계획이며 현재 정부부처의 공무원 사이에서도 관심이 뜨겁다. MDI 석박사 학위과정을 모두 이수한 이후에는 의무적으로 MDI에서 2년간 근무를 해야 한다.



[사진] 2016년 3월, 2016년도 MDI 석박사학위 과정에 대한 양곤 및 네피도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세 번째 사진은 설명회 당일 MDI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MDI 중앙실무위원회 닥터 조우 위원장

우수한 MDI의 연구인력들이 학위과정을 마치고 미얀마로 돌아왔을 때 네피도의 신축한 MDI에서 근무하게 된다. 업무시설 및 기숙사 등을 포함한 7,035m2 규모의 MDI건물이 2018년 네피도(Nay Pyi Taw)의 메인지역인 외교단지 내에 세워질 예정이다.

현재 MDI 사업은 KOICA 랜드마크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으며, MDI의 파급효과 및 정부 싱크탱크로서의 연착륙을 위해 신정부와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4년 뒤에 MDI를 기대하며 향후엔 MDI의 활약상을 다시 한 번 기고할 수 있도록 기대해본다.



[사진] 2016년 1월 MDI마스터플랜이 발표되며 MDI가 공식적으로 런칭되었다.
사진은 현판식 당일 이백순 대사, 교육부 장관, 서상목 MDI 특별자문위원

한 여름에 새해 즐기기, 라오스 삐 마이(Pi mai)

글·사진 : 송서현 (라오스 사무소 인턴)



“새해를 4월 중순에 맞는다고 ? 그것도 물을 뿌리면서 ?”

라오스에 오기 전, 삐 마이 축제에 대해 들었을 때 나는 이렇게 말했다. 4월이면 한국에서는 봄바람을 맞으며 온몸으로 봄을 만끽하고 있을 때인데 라오스에선

봄바람 대신에 물을 한 바가지 뒤집어쓴다니. 대체 왜? 하지만 한 편으로는 그들의 문화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왜 한 해가 한참 지나고 새해를 맞는 거야? 또 물은 왜 맞는 거지?’

동남아시아 새해 문화에 무지한 사람이라면 이런 반응이 당연할 것이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 라오스의 새해 문화 ‘삐마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삐마이”가 뭐예요 ?

동남아 국가 중에서도 불교국가인 라오스와 태국은 이 기간에 불교식 음력의 새해를 맞는다. 라오스는 이 새해를 ‘삐마이’라고 부르는데, 이 나라에서는 가장 큰 명절 축제이다. 여기서 ‘삐’는 라오어로 ‘Year’을 의미하고, ‘마이’는 ‘New’를 의미해서 합치면 ‘새해’라는 뜻이 된다. 기간은 보통 4월 중순 14일 전후로 3일간을 명절로 보낸다. 사실 공식적인 휴일은 3일이지만 라오인들은 그 전주 목요일이나 금요일부터 휴일을 즐기며 새해를 맞는다.



[사진] 길거리에서 신나는 물총싸움 중인 외국인들

삐마이 축제의 꽃은 단연 ‘물’이다. 이 기간에는 친한 사람들 뿐 아니라 길을 지나가는 낯선 이에게도 물을 뿌리는데 이는 나쁜 것을 씻어내고 좋은 것을 가져온다는 의미이다. 라오인들은 물 받는 양과 복이 들어오는 정도가 비례한다고 믿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물을 뿌리며 보낸다. 물탱크를 실은 차 위에서 바가지로, 상점에서 호스로, 또 젊은 사람들끼리는 물총을 쏘면서 서로의 안녕과 복을 기원한다. 원래의 삐마이는 가볍게 물을 뿌리는 행위였는데 라오스가 외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지가 되면서 이러한 문화가 생겨났다. 이전에는 상대방의 어깨에 향기가 나는 물을 살포시 부으며 상대방의 행운을 빌고 한 해의 소망을 기원하는 조용한 의식을 했다고 한다.

11월부터 4월까지 기나긴 건기가 끝나고 땀마이가 지나면 라오스는 우기가 시작된다. 라오인들은 만물이 소생하는 풍요의 계절, 우기가 돌아오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물을 뿌리며 건기의 마지막을 시원하게 적시는 것이다.

혹시 아직도 새해 계획을 못 세웠거나 새해 다짐을 못 지키고 있다면 혹은 매해 하는 꽃놀이가 조금은 싫증이 났다면, 올해는 라오스에서 새해를 보내며 다시 한 번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 색다르게 즐기는 명절에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가 시원한 물과 함께 사라져 버릴지도 모르니 말이다.

누구보다 '신나게' 땀마이 즐기기

땀마이 기간에는 집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물세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외출하기 위해선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하다. 첫째, 방수 팩! 휴대전화나 지갑같이 중요하고 물에 젖으면 안 되는 물건들은 꼭 방수 팩에 넣도록 하자. 특히 외국인이라면 더 많은 물세례를 받을 수 있으니 철저하게 방수 팩을 준비해야 한다. 둘째, 물총 혹은 물바가지! 쏟아지는 물을 받기만 할 게 아니라면, 더불어 라오스인들과 함께 축제를 즐기고 싶다면 필수로 챙겨야 한다. 여기에 옷이나 물감에 젖어도 괜찮은 옷과 머리띠나 액세서리로 본인의 개성을 더한다면 금상첨화! 땀마이 축제는 북부지역 루앙프라방에서 가장 성대하게 열린다고 하니, 출발 전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가면 더~ 재밌게 땀마이를 즐길 수 있다.



[사진] 지나가는 행인에게 물을 뿌리는 라오스인들

한-라 아동병원 관계자 인터뷰

글·사진 : 송서현 (라오스 사무소 인턴)



“한-라 아동병원 폰다완 부원장 인터뷰”

라오스에서는 최고의 길일(吉日) 중에 하나로 꼽히는 그 날. 비엔티안 시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바로 라오스 최초의 아동병원인 ‘한-라 아동병원’의 개원식이 진행된 것이다. 2011년 한-라 우호증진과 열악한 라오스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건립한 이 병원이 벌써 올해로 개원한지 5년이 되었다. 그 사이 병원을 찾는 환자 수는 2012년 3만여 명에서 2015년 5만여 명으로 증가하였고, 특수질병 클리닉의 성행을 통해 이제는 명실상부 라오스 최고의 아동병원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래서 2016년 현재 한라 아동병원이 라오스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부원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들어보았다.

“한-라 아동병원 폰다완 부원장”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라 아동병원의 부원장을 맡고 있는 소아과 전문의 폰다완(Dr. Phonedavanh DONESAVANH)이라고 합니다. ‘이종욱 프로젝트’로 한국에서 6개월 정도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고 그 이후로 이곳의 부원장으로 일하며 한국과의 인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진] 인터뷰 중인 폰다완 부원장

Q. 한라 아동병원은 어떤 곳이며 라오스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라오스는 1,000명당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98명, 1,000명당 영유아 사망률 70명으로, 주변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아동 및 영유아 사망률을 보이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개원당시, 적절한 의료 인력과 시설 부족으로 열악한 보건환경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KOICA가 2009년부터 350만 불을 투입하여 70병상 규모의 아동병원을 건립했습니다.



[사진] 환자를 돌보고 있는 봉사단원

이후에 많은 의료 인력들을 채용(현재 119명 근무 중)했고 또 한국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서 전반적인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 간호, 방사선, 보건행정 등 KOICA 봉사단원이 파견되어 아동병원의 발전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2016년 현재에는 매일 200여명의 환자가 우리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수클리닉(지중해 빈혈, 소아암)이 유명하다고 알려져 전국 각지에서 우리 병원을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Q. 라오스 최초 지중해빈혈클리닉, 소아암클리닉을 운영하고 꽤 많은 환자가 찾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팀제로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을 한국으로 보내 선진 의료 기술을 배우오는 연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소아암의 경우 3개월에 한번 수혈을 받고 약을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편입니다. 또한 한국불교재단의 도움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관리와 지원, 숙련된 의료기술이 있기 때문에 특수클리닉을 찾는 환자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Q. 한라 아동병원이 직면한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사진] 소아암클리닉 답게 문 앞에 뽀로로 캐릭터로 꾸며놓은 모습을 볼 수 있는 소아암클리닉 전경

가장 큰 문제점은 숙련된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초창기에 비하면 각 분야별로 많은 인력이 있지만 아직도 우리 병원을 찾는 환자 수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환자를 위한 숙련된 의료진이 우리 병원에 필요한 가장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는 IT 분야 역량이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라오현지 간호사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부족도 우리 병원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Q. 앞으로 한라 아동병원이 나아갈 방향?

우리 병원의 가장 큰 목표는 당연히 라오스 보건 의료의 발전을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특히 소아 분야에서 말이죠. 이를 위해 KOICA와 함께 숙련 의료진 양성, 봉사단원 파견, 각종 기자재 지원 등의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의 제공으로 라오스 소아보건 관리 분야의 대표 병원이 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목표입니다.

MDI 전문가 WFK 봉사단원 인터뷰

글·사진 : 서영채 (미얀마 사무소 ODA 청년인턴)



2015년 코이카에서는 전문 봉사단 분야 중 하나인 '보건교육 프로그램 및 국제개발' 1기 전문 봉사단원을 선발하였다.

이에 2015년 9월, 미얀마에는 국제개발 분야 전문의 최이슬 단원이 파견되어 현재 네 피도 미얀마개발연구원(MDI : Myanmar Development Institute)에서 적극적으로 활동 중이다. 최이슬 단원을 만나 국제개발 분야 단원의 업무 및 미얀마에서의 경험담을 들어보았다.

최이슬 1기 국제개발 분야 전문 WFK 봉사단원

Q. 단원님, 안녕하세요!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9월 국제개발 1기로 미얀마에 파견된 최이슬입니다. 현재 네 피도 과학기술부 건물에 있는 MDI 임시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Q. 국제개발 단원에 지원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또한 일반 봉사단원분들과 비교하여 다른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개발도상국을 위한 정책연구를 한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어요. 제가 앞으로 계속 하고 싶은 일이거든요.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무하마드 유누스가 마이크로크레디트 은행을 설립해 빈곤을 완화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은 소식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어요. 그 분이 경제학자였던 것을 보고 저도 경제학을 공부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죠. 경제학 공부를 계속하면서 개발경제학이라는 분야를 알게 되었고, 개발도상국을 직접 경험해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진] 104기 봉사단원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
오른쪽에서 첫 번째 최이슬 단원.

개발도상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경로는 여럿인데, KOICA 국제개발 직종으로 지원한 것은 국가와 파견기관 때문이었어요. 학교에서 구소련국가들과 중국의 경제 이행 수업을 무척 재미있게 들었어요. 미얀마에 가면 정치경제적 이행기를 직접 볼 수 있고 또 제 파견기관인 MDI는 이행 정책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지원했죠. 그리고 미얀마의 역사적 순간이 될 선거를 경험해볼 수 있다는 점도 끌렸어요.

일반 봉사단원과 국제개발 단원이 다른 점은 파견기간이 1년이라는 것과 그에 따라 규정들이 약간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연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봉사단이라는 하지만, 일반 봉사단원 내에도 여러 직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게 큰 차이점인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일반 봉사단과 다른 봉사단이라기보다는, 기존 봉사단의 직종이 확장되어 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봉사단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생각해요.

Q. 미얀마에서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나요?

우선 파견기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할게요. 제 파견기관인 MDI는 미얀마 정부의 싱크 탱크로, 한국의 KDI를 본떠 만들어졌어요. 떼인 세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면담 중에 기관 설립을 요청했고, KOICA가 맡아서 기관을 설립하고 2019년까지 운영하기로 되어 있어요. 정부를 위한 연구기관이라 정부가 그때그때 필요하다 싶은 주제를 연구하고 정책조언을 하는 기관이죠. 하지만 아직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올해 1월 15일 사업 마스터플랜 발표 및 임시사무소 개소식을 해서 아직 걸음마 단계의 기관입니다. 이렇게 설립 초기 단계에 있는 기관이다 보니 자료 수집 업무가 가장 많아요. 미얀마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파악하고, 다른 유관 기관들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 미얀마는 다른 개발도상국들보다 자료가 더 없는데, 미얀마가 폐쇄국가였던 데다 미국의 제재로 국제기구들이 2012년 이후에야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런데 경제학 연구는 자료가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연구주제가 정해지면 그에 맞는 문헌들, 미얀마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 데이터들을 모두 뒤져봐요. 자료가 없으면 없다는 것 자체를 확실히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다른 기관에 방문했을 때 인터넷에서 구할 수 없는 자료들을 내부적으로는 보유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없다면 우리가 직접 생산해내야 하니까요. 자료를 직접 서베이를 통해 생산해나가야 한다는 점이 미얀마 연구기관의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정석적인 연구 외의 업무도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미얀마 정부기관 사람들이나 나중에 정책연구를 협업할 수도 있는 다른 국제기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네트워크를 맺는 일이에요. 특히 미얀마는 연구를 위한 자료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 사람들과의 인터뷰가 매우 중요한 정보가 돼요. 저는 세미나 참석과 연구 출장단 수행을 가끔 하는데, 국제기구든 정부기관이든 하고 있는 일이 바로 보고서로 올라오지는 않는 데 반해 그런 곳에서는 어떤 일을 어떤 목적에서 하고 있는지 최신 상황을 알 수 있어서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해요.

Q. MDI 설립이 미얀마에 있어서 어떤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미얀마 정부만을 위한 정책연구 기관이 생긴다는 점이 가장 큰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미얀마 같은 개발도상국은 물론이고, 한국조차도 유명한 국제 학술지에 시의적절하면서도 국가 특성을 반영한 정책연구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국제학술지의 좋은 연구들이 많은 국가들의 정책의 근거가 되는 것은 맞지만, 그 연구들을 미얀마화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내놓을 수 있는 연구기관이 미얀마에 있다는 것은 분명 이 나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미얀마의 큰 문제점 중 하나인 인재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점도 큰 의의입니다. 자국에 좋은 연구기관이 생기면 미얀마 내 연구 인력들이 떠나지 않겠죠. 저도 사실 이 점은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는데, MDI 개소식 때 미얀마 공무원 분들이 이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보고 깨닫게 되었어요.

Q. 미얀마에서 좋았던 점이나 힘들었던 것에는 무엇이 있으신가요?

우선 만났던 미얀마 사람들이 모두들 좋았어요. 제가 베푼 것도 없는데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호감을 갖고 대해주시는 미얀마 분들이 많아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좋았던 점이자 힘들었던 점은 선거입니다.



[사진] 양곤 경제대 관계자와 사진을 찍은
최이슬 단원

미얀마의 역사적 순간으로 남을 선거를 직접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게다가 이번 미얀마 선거는 한국에서도 이슈가 되어 한국 친구들에게 미얀마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도 했지요. 선거가 힘들었던 것은 업무 때문인데, 정권 교체로 MDI 설립 사업이 지연되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파견이 늦어졌어요. 미얀마에서 많은 일을 하지 못하고 가게 되는 것이 당시 힘들기도 했고 지금도 무척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만, 조금한 마음을 덜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Q. 국제개발 1기 단원으로서 각오 한마디 혹은 하고 싶은 말씀 한 마디 남겨주세요.

인문학 교양 수업 중에 교수님께서 자기 제자를 꾸짖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같이 인도에 현지조사를 나갔는데, 학생들이 사람들을 보며 인상을 찌푸리더라요. 교수님께서 “너희는 사람을 연구하는 것을 업으로 삼으려는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좋은 연구자가 되겠냐”고 하셨대요. 저는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지만 사람 사는 세상을 연구한다는 점에서 저 학생들과 같다고 보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세를 잊지 않으려고 종종 되새기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인성입니다만, 미얀마에 있는 동안 미얀마와 미얀마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녀들의 더 나은 삶

글·사진 : 박선경(교육보건팀), 그림 : 홍세훈 작가

여아들이 성장하여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능력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경제능력이 없는 여아들은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남성과 이른 나이에 결혼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폭력, 학대 등 다양한 차별과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은 그들의 자신감과 독립심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소녀들의 권리 실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013년 UNESCO EFA 조사에 따르면 개발도상국 15-24세 소녀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억 천 6백만 명은 초등교육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소녀들은 기초교육은 물론이고 중등교육 및 직업교육 또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녀들은 이처럼 직업을 갖기 위한 적절한 기술을 배우지 못한 채 육아나 가사노동을 떠맡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소녀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향후 노동시장과 사회에 진출한 후에도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은 교육을 받을수록 당연히 취업의 기회는 더 많아집니다. 브라질에서는 초등교육을 마치지 못한 여성 중에서 단 37% 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녀들이 만약 초등교육을 마치게 되면 50%, 중등교육을 마칠 경우 60%의 여성이 향후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직업을 갖는 것은 단순히 여성들이 경제적 능력을 얻는 것 이상으로 그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결혼이나 출산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또한 경제적 빈곤과 저성장이 심각한 개발도상국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은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사회 개발 실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숙련된 기술노동력은 초기 개발도상국의 산업 및 경제 발전에 있어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며, 직업을 통한 여성들의 권리 신장은 개도국의 불합리한 사회적 관습 및 남녀불평등을 완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소녀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Better Life for Girls는 교육권 보장, 보건권 강화, 미래역량 강화와 같은 프로그램을 계획했습니다. 교육권 보장, 보건권 강화에 이은 세 번째 프로그램이 미래역량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사진] KOICA-GIZ-삼성전자 후원의 여성전자직업훈련센터, 가나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은 소녀들과 젊은 여성의 사회경제적 역량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아들이 교육을 더 이수할 때마다 그들의 미래 수입이 더 많이 보장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히 경제적 수입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권리 신장과 모성 아동 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변화를 담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녀들의 더 나은 삶' 구상의 미래역량 강화 주요 프로그램입니다.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내 직업기술훈련

개발도상국 소녀들은 여러 장애요인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면서 기술훈련을 비롯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학교에 다니더라도 부족한 기술훈련 교육과 프로그램으로 향후 미래직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술을 익히지 못하기도 합니다.

KOICA는 ▲기술 및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노동시장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학습자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노동시장의 수요를 학습과정에 적용하는 것은 양질의 직업기술교육 훈련 표준 모델을 만들어 소녀들의 직업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시장요구에 맞는 교육과 훈련 제공을 위한 지역 사업체 및 고용주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지역 사업체와의 상생은 물론 개도국 현지의 사회경제적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부족한 기술, 직업훈련 및 공통역량 교육 확대는 여성들의 취업 역량을 키워 소녀 교육의 효과를 증명하고 그 다음세대의 소녀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선순환 과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여성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KOICA는 제도권 내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학업 기회를 놓친 여성 등을 위한 체계적인 지역사회 교육은 배움의 시기를 놓친 여성들에게도 포용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온전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또한 기본적인 문해 능력뿐만 아니라 ▲여성의 기업가정신과 취업능력 신장 ▲리더십 지도 및 멘토링 기회 지원 등은 여성들이 단순히 기술, 문해 능력을 증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신감과 의사결정능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여성들은 결혼, 출산과 같은 주요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고 향후 미래가정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KOICA는 정보 접근에 취약한 ▲농촌지역 여성들의 문해 교육, 생산교육 등 기본 능력 제고를 도와 지역사회 여성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소외 집단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것입니다.

개발도상국의 지역사회에서 소녀들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유능한 여성인재가 활동하는 것은 공동체 내 여성들의 입지를 변화시키고 전통적인 성 역할 관념을 완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녀들을 학교에 보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의 인식을 바꾸어 소녀들이 졸업 후 가정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소녀들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는 것만으로도 개발도상국의 여아 취학률을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소녀들의 더 나은 삶’ 미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다양한 효과를 파생시킬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소녀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정부와 KOICA는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을 통해 그들이 부족한 자원과 환경으로 인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할 것이며 이는 나아가 한국의 성장 경험 공유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CFC 5월 행사 안내

첫째주	▶네팔커뮤니티(13:00~17:00)-창원교통방송국 ▶1주차 귀국예정자 취·창업 훈련과정 자동차 정비 개강(10:00~16:30)-경남자동차정비학원 ▶마산의료원 무료진료(14:00~16:00)-상담실 ▶지역사회 환경 정화활동 실시(15:00~17:00) ▶체류 및 귀국지원통합서비스(10:00~14:00)-1인창조기업3층이노카페(베트남, 캄보디아근로자) ▶5주차 TOPIK3급 1차 자격취득반 교육(13:00~17:00)-102호 교육실 ▶바다부지개 소식지5월호 발간
둘째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무료진료(10:00~16:00)-마산합포구청 광장 ▶제 2차 산업안전교육 실시(오전, 오후 각 2교시)-각 교육실 ▶2주차 귀국예정자 취·창업 훈련과정 자동차 정비(10:00~16:30)-경남자동차정비학원 ▶체류 및 귀국지원통합서비스(10:00~14:00)-1인 창조기업3층이노카페(네팔, 우즈베크근로자) ▶6주차 TOPIK3급 1차 자격취득반 교육(13:00~17:00)-102호 교육실 ▶상담원 역량강화교육(15:00~17:00)-다목적홀
셋째주	▶2016년 세계인의 날 행사(09:00~16:00)-경남도청 및 야외 행사장 ▶찾아가는 이동서비스(17:00~20:00)-창원침례교회 ▶1주차 귀국예정자 취·창업 훈련과정 농기계 수리 ▶사업주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교육(13:40~17:00)-고용노동부진주시청 ▶시설장 간담회(14:00)-통도사 자비원 ▶상담원 역량강화교육(15:00~18:00)-다목적홀
넷째주	▶필리핀근로자 커뮤니티(09:00~12:00)-마산 운동장 ▶체류 및 귀국지원통합서비스(10:00~14:00)-1인창조기업3층이노카페(인도네시아, 스리랑카근로자) ▶2주차 귀국예정자 취·창업 훈련과정 농기계수리(10:00~16:30)-진주 경남농업기술원 ▶3주차 귀국예정자 취·창업 훈련과정 자동차정비반(10:00~16:30)-경남자동차정비학원 ▶찾아가는 이동서비스(15:30~18:00)-창원 남산교회 ▶7주차 TOPIK3급 1차 자격취득반 교육(13:00~17:00)-102호 교육실 ▶외국인 자살방범대 활동(19:00~21:00)-통영시 안정공단 ▶(주)건화 사업장 안전교육(10:00~14:00)-(주)건화 교육장 ▶제46회 토평시험 합격자 발표 ▶찾아가는 이동서비스(14:00~21:00)
다섯째주	▶HCC(12:00~13:00)-교육실 및 다목적 홀 ▶제46회 토평시험 합격자 성적증명서 수여식 ▶8주차 TOPIK 3급 1차 자격취득반 교육(13:00~17:00)-102호 교육실 ▶체류 및 귀국지원통합서비스(10:00~12:00, 14:00~16:00)-1인창조기업3층이노카페(필리핀, 중국근로자) ▶3주차 귀국예정자 취·창업 훈련과정 농기계수리(10:00~16:30)-진주 경남농업기술원 ▶4주차 귀국예정자 취·창업 훈련과정 자동차정비(10:00~16:30)-경남자동차정비학원 ▶캄보디아근로자 커뮤니티(14:00~17:00)-고성군 동해면

CFC와 함께해요😊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를
사랑해주실 준비가 된 분들이라면 누구나 OK~! 망설이지 말고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자원봉사자여러분을 기다립니다.

e-mail: mfwc@hanmail.net ☎ 055-253-5270~4

홈페이지주소: www.mfwc.or.kr/ (누르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세요



나라별 상담전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주

< 후원 계좌 >

-후원 해 주셨습니다.-
▶ 16.04.07 푸드뱅크 Ⅱ 음료5BOXⅡ
(한국어, 컴퓨터 교육 사용)

경남은행 513-07-이95121
예금주: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